

생활 속의 금기어 이야기

저자 허재영



도서출판 역락

저자소개

허재영

건국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문학석사·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건국대, 경원대, 협성대 강사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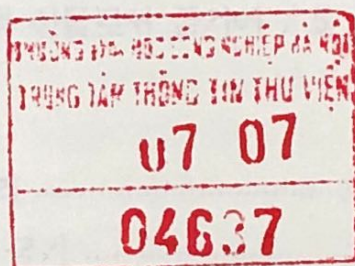
저서

「국어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교양인과 글쓰기 기술」 등이 있으며, 「지움월(부정문)의 통시적 연구」등 20여 편의 논문이 있다.

생활 속의 금기어 이야기

허재영 지음

첫째 마당	금기어 속의 금기어	31
둘째 마당	생활 속의 금기어	37
셋째 마당	물건 속의 금기어	39
넷째 마당	행동 조짐을 읽는 법	73
다섯째 마당	동물과 무속신앙	95
여섯째 마당	식물에 얽힌 금기어	123
일곱째 마당	민간신앙과 상사	133
여덟째 마당	세상에 기념일	151
아홉째 마당	갈등 현상과 금기어	163
열째 마당	전승과 언어차별	185
열한째 마당	꿈과 금기어	201
열두째 마당	현대인의 금기어	211
열셋째 마당	선조어	221
열넷째 마당	금지어의 부활인가	255



HANOI UNIVERSITY OF INDUSTRY
KOREAN DEPARTMENT

도서출판 역락

목 차

생활 속의

김기어 이야기

펼치는 글 : 문화와 사회적 산물로서 김기어 / 5

첫째 마당	규범과 윤리	9
둘째 마당	생활 속의 김기	35
셋째 마당	물건 속의 김기	57
넷째 마당	행동 조심을 일컫는 말	75
다섯째 마당	동물과 무속신앙	95
여섯째 마당	식물에 얹힌 김기	123
일곱째 마당	민간신앙과 상징	139
여덟째 마당	세시와 기념일	155
아홉째 마당	단순 연상과 김기	169
열째 마당	관습과 남녀차별	185
열한째 마당	꿈과 김기	207
열두째 마당	현대인의 김기	231
열셋째 마당	전조어	243
뒷 풀 이	김기어란 무엇인가	255

펼치는 글 : 문화와 사회적 산물로서 금기어

이 책은 한국인의 금기어를 살피고자 한 책이다. 글쓴이는 사회언어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사회언어학은 언어 이론 면에서의 엄격한 규칙을 탈피하여, 통계 및 사회 구성원의 관념을 중시한다는 특징이 있다.

금기어는 문화적인 산물이다. 특히 사회 구성원의 사고 방식이 금기어를 낳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 점에서 금기어를 살피는 것은 당시 사회 구조나 사람들의 의식을 살피는 것과도 같은 의미를 지닌다. 서양 사학자들 가운데, 중세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흔히 '정신사'라는 말을 쓴다. 이들은 정신사가 중세 봉건 사회에 잘 어울리는 말이라고 설명하고는 하는데, 이 때 쓰이는 정신사의 개념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좀처럼 바뀌지 않고 남아 있는 의식의 세계가 역사적으로 이어진 것'이란 뜻을 갖는다. 물론 정신사는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반박을 받기도 한다. 더욱이 현대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의 공통된 의식이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정신사라는 말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러나 금기어 발생의 심리를 따져본다면, 하나의 민족이 갖고 있는 정신 세계를 탐구할 수 있다. 민족성이라든가 민족 문화라는 수식어를 쓰지 않더라도, 한 민족이 갖고 있는 의식의 세계는 독특함을 이룰 수 있다. 이는 역사적인 조건이나 지리적 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유의할 점은 이와 같은 정신 세계를 따질 때 선입관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선입관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민족성' 논의에서 나타난 바대로 '어느 민족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못난 민족'이라는 사고 방식이다. 우리 민족의 경우도 일제 관학자들에 의해 이와 같은 민족성 논의가 제기된 바 있었다. 특히 일인들은 자신들의 조선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국사를 왜곡하고, 한국 민족의 성격이 열악한 것처럼 선전했다. 이들은 고도의 학문 방법을 도입하여, 좀처럼 비판 정신을 갖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논의가 사실인 것처럼 믿

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교한 논리를 개발했다. 흔히 '한국인의 정서는 한(恨)'이라 말하는 것도 이와 같은 식민 사관의 유산일 가능성이 높다. 일인들에 따르면, 우리 민족은 외침이 많았고, 당파성과 사대성이 강했기 때문에 타율적이고 한스러운 일이 많은 민족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가 사실이 될 수는 없다. 이 글에서 글쓴이는 금기 발생 과정과 금기어의 모습을 통해 우리 민족의 삶의 모습을 좀더 사실적으로 탐구해 보고자 했다. 틀림없는 것은 금기 발생은 어느 민족의 민족성을 나타내는 징표는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이 민족의 특성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산물임을 생각한다면, 금기어의 모습도 이와 유사한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기 발생의 심리가 세계적으로 보편성을 띤다 하더라도 민족에 따른 독특한 금기어가 생기는 것이다. 이는 시대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원시인이라고 해서 더 많은 금기어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현대인이라고 금기어가 적은 것도 아니다. 곧 금기 발생은 보편성을 띤다. 단지 환경 속에서 변화의 과정을 거칠 따름이다. 그런데도 일부 학자들은 금기어는 원시적인 사회 모습을 띠고 있다고 강변하거나, 한국인의 정서는 어둡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곤 한다. 이 또한 식민 교육의 잔재일 가능성이 높다.

금기는 사회와 문화의 산물이다. 이를 모으고, 합리적으로 풀이하는 일은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일일 것이다. 다만 글쓴이의 재주없음으로 말미암아 좀더 폭넓고 재미있는 글이 되지 못한 아쉬움도 남는다. 그럼에도 기꺼이 책을 펴내 주신 이대현 사장님, 그리고 역락 식구들께 고마운 말씀을 올리하고자 한다.

2000년 9월

검단산 아래에서 지은이 적음

역락 국어학선

● 국어문법연구

저자: 민현식 / 정가: 15,000원

* 2000년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도서

● 우리말 방언 성조의 비교

저자: 김차균 / 정가: 90,000원

* 2000년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도서

● 남·북한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 연구

저자: 최현섭·이인제 / 정가: 9,000원

● 생활속의 맞춤법 이야기

저자: 성기지 / 정가: 9,000원

● 활용 대학 생활 국어

저자: 박경숙 / 정가: 8,000원

● 한국언어문화의 이해

저자: 김외곤·최지현 / 정가: 16,500원

● 방송화법

저자: 이주행 / 정가: 12,000원

● 국어화법과 방송언어

한국화법학회 / 정가: 15,000원

● 간접화행

저자: 이준희 / 정가: 7,500원

● 국어 문장의 형성원리 연구

저자: 최응환 / 정가: 12,000원

● 문법역과 문법관계

저자: 이영민 / 정가: 17,000원

● 국어 특수조사의 통사·의미 연구

저자: 김진호 / 정가: 10,000원

● 읽기 교육의 이론과 실제

저자: 정기철 / 정가: 25,000원

● 우리 말글과 문학의 새로운 지평

저자: 리의도외 9인 / 정가: 8,000원

● 문학교육의 틀짜기

저자: 김대행 / 정가: 10,000원

● 일본어학의 상식

저자: 이미숙 / 정가: 9,000원

역락 현대문학선

● 현대 한국문학 산책

저자: 한형구 / 정가: 13,000원

● 한국 현대문학 비평사론

저자: 임영봉 / 정가: 15,000원

● 1920년대 문학과 염상섭

저자: 박상준 / 정가: 15,000원

● 시연구과 시교육

저자: 차호일 / 정가: 10,000원



이 책은 한국인의 금기어를 살피고자 한 책이다.
금기어는 문화적인 산물이다. 특히 사회 구성원의 사고
방식이 금기어를 낳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 점에서 금기어를 살피는 것은 당시 사회 구조나
사람들의 의식을 살피는 것과도 같은 의미를 지닌다.
금기어 발생의 심리를 따져본다면, 하나의 민족이
갖고 있는 정신 세계를 탐구할 수 있다.
민족성이라든가 민족 문화라는 수식어를 쓰지 않더라도,
한 민족이 갖고 있는 의식의 세계는 독특함을 이룰 수 있다.
이는 역사적인 조건이나 지리적 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금기는 사회와 문화의 산물이다. 이를 모으고,
합리적으로 풀이하는 일은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일일 것이다.

「펼치는 글」 중에서 부분 발췌

TRƯỜNG ĐẠI HỌC CÔNG NGHỆ
TRUNG TÂM THÔNG TIN TH



Mã sách: 070704637



9 788988 906699

정가 : 9,000원

ISBN 89-88906-69-1